

아래 글은 김진태 목사가 번역한 All For Jesus 의 일부로서 오순절 운동으로 인한 얼라이언스의 위기에 이에 대한 심슨 목사의 입장을 나타내는 글이다.

(번역본 164-172 면)

### 오순절 운동의 확산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고 선교사역에 전심하고자 했던 것은 심슨 목사뿐만 아니라 얼라이언스 전체의 의도였다. 얼라이언스는 원래가 예수님을 닮아 가는 성결의 삶과 주님의 복음을 만천하에 전파하는 선교에 뜻을 같이 하는 성도들의 자발적인 모임이었기에 엉뚱한 일로 사역의 초점을 잃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얼라이언스는 교리적 특성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면은 별도로 다루지 않고 큰 윤곽만 제시했다. 믿음생활과 교리 모든 면에 적용되었던 얼라이언스의 이상은 하나됨과 사랑의 실천이었다. 이 하나됨과 사랑이라는 두 가지 기본원칙은 이제 곧 얼라이언스를 휩쓸 방언운동에 대응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얼라이언스는 이 두 원칙과는 별도로 교리적인 면을 정리함으로써 이러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려 했다. 1906 년 로스앤젤레스의 아주사스트릿에서 방언의 역사가 큰 무브먼트가 되려는 조짐이 일어나는 동안에 얼라이언스의 지도자들도 나이약에서 총회준비를 위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1906 년 5 월 컨퍼런스에 참석한 감독들과 정회원들은 기도와 회의를 통해 얼라이언스 회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교리를 만들고자 모였다. 회원들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면서도 함께 사랑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해 더 상의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했다. 무엇보다 관심을 모았던 것은 성화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컨벤션은 이에 대해 성화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첫 번째 축복인 칭의에 이어 오는 두 번째 축복으로 구원과는 별도로 받는 성령세례와 이로 인해 헌신된 성도의 삶에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이 결정적으로 (definite sanctification) 실현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성화에 대한 다른 입장에 대해서도 논의하기 위한 회합이 열렸으나 성화에 대해 합의한 이 내용은 방언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었다.

1907 년이 되자 방언운동은 온 미국과 캐나다와 다른 여러 나라로 요원의 불처럼 번져나갔다. 이를 주도한 것은 아주사스트릿에서 방언을 체험한 이들로서 이들은 때로는 혼자 때로는 팀을 이루어서 미 전역을 돌아다니며 성령충만은 반드시 방언을 동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다녔다. 방언운동처럼 예민한 교리문제는 항상 과도한 입장으로 전락하기 쉬운 법이다. 과불급이라고 했다. 무엇이든 지나치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말이다. 심지어는 방언운동과 오순절 운동을

옹호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교리를 전파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다. 어떤 교회들은 그래서 방언운동에 부정적으로 대응했다. 왜냐 하면 방언운동하는 사람들의 주장대로 한다면 방언이 없는 자기 교회는 3 류 교회인 것처럼 들리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많은 얼라이언스 지회들은 오순절 운동의 교리를 적극적으로 수용했을 뿐 아니라 성도들 중 방언을 받은 사람들도 늘어나기 시작했다. 얼라이언스 지회에서 방언운동으로 인해 일어났던 사건들을 간추려 보겠다.

시카고 얼라이언스 지회의 목사였던 윌리엄 맥아더는 방언운동이 1907 년 시카고로 번져오자 장기간의 집회를 소집했다. 이 집회기간 중 지회원 수명이 방언을 받았는데 그 중 한 사람은 바로 맥아더의 처였고 어쩌면 맥아더 자신도 방언을 받았을 것이다. 맥아더는 방언운동이 가져온 축복과 폐단에 대해 여러 번 기사를 썼다.

인디애나폴리스 얼라이언스 지회는 좀 별난 경우를 당했다. 당시 지회목사였던 엘드리지가 출타 중인 것을 틈타서 아주사스트리트 집회에 참석하고 돌아온 사람 하나가 방언을 추구하도록 회중을 부추겼고 그 중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임을 가지려고 했다. 그러나 여행 중 이 소식을 들은 엘드리지가 지회 집사에게 전보를 보내어 이런 용도로 지회건물을 사용치 못하도록 조치하였다.

오순절 운동이 가장 잘 먹혀 들어갔던 지회는 오하이오 지회로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많은 얼라이언스 회원들이 얼라이언스에서 이탈한 곳이다. 1907 년 1 월 아이비 캠벨 양은 로스앤젤레스에서 자신이 체험했던 방언에 대해 아크론에 있던 한 얼라이언스 그룹에서 간증했다. 당시 클리블랜드의 얼라이언스 감독이었던 크라머도 마침 이 모임에 참석해서 이 간증을 듣고 오순절 과의 가르침이 옳다고 확신했다. 크라머는 클리블랜드에 돌아가 성도들과 함께 사도행전을 상고하며 방언에 관한 그들의 가르침이 옳았는지를 점검했다. 후일 크라머는 이렇게 간증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제게 강림하셨습니다.... 갑자기 성령께서 제 입술을 빌려 제가 한번도 배운 적이 없는 방언으로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캠벨 양은 다음 달인 2 월에 1 일간 집회를 인도할 예정으로 클리블랜드를 방문했으나, 얼라이언스 회원들의 호응으로 4 주간 체류하며 집회를 인도하게 되었다. 크라머는 이로 인해 일어난 성령의 역사에 대해 이렇게 전했다. “캠벨 양의 방문을 계기로 해서 50 명의 회원들이 방언을 받았습니다. 얼라이언스 지회는 온통 성령의 불길로 타오르고 있습니다. 불신자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성도들은 성결의 역사를 체험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깨어졌던 가정이 다시 화합하고,

빛도 없어지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아름다운 사랑과 교제가 모든 성도들  
간에 충만합니다.”

오하이오 지역에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방언운동 때문에 심슨 목사는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헨리 윌슨 박사를 보냈다. 윌슨 박사의 보고내용에 대해 토저는  
이렇게 기록했다. “오하이오 지역에서 일어난 방언운동을 검증한 결과 저로서는  
이를 승인할 수 없음을 선언합니다.” 윌슨의 보고에 대해 심슨은 사설에서 이렇게  
썼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던 오하이오 지역의 성령운동에 대해 방금 오하이오  
컨벤션에서 돌아온 윌슨 박사의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윌슨  
박사에 의하면 성령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오하이오 지역의 사역과 사역자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현명하게도 오하이오 지역의 형제들은 이  
역사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도록 절제하면서도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축복을 충만하게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얼라이언스 형제들께  
성령의 역사에 마음 문을 활짝 열기를 기원하고, 그러나 **이에 지나쳐서 절제하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시며, 삶 속에서 실천되는 성결과 온전함을 추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슨은 이와 같이 드러내놓고 오하이오 지역에서 일어난 방언운동에 대해  
비난하지는 않았지만 오순절 운동과 관련해서 자신이 익명으로 발간한 월간잡지  
“살아 있는 말씀” (Living Truths)에서 두 가지 위험에 대해 경고했다. 첫째,  
심슨은 성도들이 가짜 은사가 있다고 해서 성령의 은사 전체에 대해 도매금으로  
부인하는 과오를 범하지 말도록 경고했다. “**가짜 은사는 항상 진짜 은사를 모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짜 은사가 있다는 것은 곧 진짜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짜 은사를 분별하여 은사를 추구하는 성도들이 스스로 속이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우선 먼저 진짜 은사를 인정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 선불리  
**남의 은사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무조건  
받아들여서도 아니 됩니다. 항상 주의 깊게 관찰해서 가짜는 가려내되 진짜는  
인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위험에 대해 심슨은 이렇게 경고했다. “어떤 성도들은 남들에게 없는  
특별한 성령의 은사를 지나치게 추구한 나머지, **성령뿐 아니라 악령의 영향에  
자신의 영혼을 고스란히 노출**시키게 됩니다. 사단은 항상 하나님을 흉내 내기를  
즐거하는 자입니다. 어떤 경우는 사단의 단수가 높아져서 엄청난 영적 현상까지  
흉내를 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순진한 성도들이 속기 쉽습니다. 그래서 의심할  
줄 모르는 순진한 성도들이 사단의 꾀계에 가장 쉽게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고 (요일 4:1) 모든 일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심슨이 경고한 이 두 가지 원칙은 오늘날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성령의 역사 특히 방언의 은사만큼 교회에 큰 분란을 일으킨 것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첫 번째 경고를 받아야 할 교단들은 미국의 기성교단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교단들이다. 특히 남침례교단은 방언의 역사는 초대교회 당시에만 있었고 완전한 계시인 신약성경이 완성되고 난 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면을 따져보면 가짜 은사의 문제가 너무 지나치게 나타나자, 숫제 방언의 은사 자체를 부인하기 위해 아전인수격으로 세대주의적인 해석을 적용했던 것이다. 이러한 아전인수격인 성경해석은 남침례교단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가 하면 후자의 경고를 받아야 할 교단도 많이 있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는 꼭 미국에 한한 문제가 아니다. 심슨은 이러한 문제를 보는 시각에 있어 역시 선견자였다. -역자 주]

## 5 년간의 검증

심슨에게 이어 방언의 문제는 교단과 신학적 차원의 문제였을 뿐 아니라 본인자신에 대한 영적 도전이었다. 그래서 심슨은 이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리는데 장장 5 년이란 세월을 할애하여 스스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검증한 후에야 얼라이언스의 입장을 정리하였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기는 심슨도 이룰 못지 않았던 사람이었으니 방언운동에 관련된 성도들에게 대해 가장 동류의식을 느낀 것은 물론이었다. 과거 성결과 신유의 체험을 했을 때나, 장로교단에서 사임할 각오까지 하면서도 침례를 받았을 때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면 누가 무어라고 해도 어떤 손실이 있더라도 즉시 그대로 행했던 심슨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이는 더욱 그러하다.

심슨은 한 가지 원칙에 입각해서 모든 일을 행했다. 바로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를 확실히 검증하고 행하였던 것이다. “제 체험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은 성경말씀을 그저 학문적인 이론처럼 받아들이고 가르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원칙은 심슨의 삶을 통해 시종여일하게 적용되었다.

1907년 얼라이언스 총회를 앞두고 심슨은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특히 하나님의 영께서 친히 특별한 기름부음으로 자신에게 역사하심으로써 당시 일어나고 있는 성령운동에 대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기를 기도하였다. 총회가 끝난 후 심슨은 일기책에 이렇게 기록했다. “무엇보다 감사했던 것은 하나님이 이번 총회를 통해 내 영혼에 안정을 허락하시고 내 영을 더욱 밝게 하여 주신 것이다. 또한 이번 총회를 통해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시는 큰 축복을 허락하셨다. 총회 마지막 날 (금요 철야기도회?)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모임을 통하여 나타났다. 방언의 은사도 나타났고 다른 현상도 나타났다. 그 중 일부는 진짜 성령의 은사였지만 일부는 정상을 벗어난 과도한 현상도 있었다. 이로 보아 성령의 역사뿐만 아니라 영적 허영심의 발로로 나타난 인간적인 요소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후자의 경우는 개인적이거나 교회적으로나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경우였다.

두 가지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다. 첫째, 하나님께서 고린도 전서 12장과 14장에 말씀한 성령의 은사에 대해 분별하여 질서 있게 행하도록 인도하셨다. 둘째, 동시에 성령의 은사가 있다는 사실과 얼라이언스 성도들 간에 진짜 은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다시금 꿇어 엎드려 방언의 은사를 허락하심으로 하나님 앞의 지고하신 뜻과 영광을 나타내시도록 기도하게 되었다.”

1907년 8월 방언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심슨은 자신이 신유를 체험했던 추억의 올드오차드 송림으로 발을 옮겼다. “1881년 하나님께서 내 죽을 육신을 치유하셨던 그 곳에서 하나님께 다시금 신유의 언약을 드렸다. 동시에 하나님께 기도했다. ‘성령세례를 내려 주시되 오순절 성도들에게 강림하셨던 모든 은사와 은혜로 충만히 내려주셔서 나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나의 삶과 사역에 닥쳐올 새로운 상황과 필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소서!’ 주님은 주님 특유의 빛의 임재로 나를 만나주셨다. 곧 주님의 빛의 임재가 사라지려 할 때, 나는 주님께 제발 떠나지 말아 달라고 간청했으나 주님은 내게 말씀하셨다. ‘26년 전 신유를 받을 때처럼 그저 믿기만 하고 단순한 믿음으로 내가 원했던 모든 은사와 은혜를 받아들여라.’ ” [과연 심슨이 말하는 빛의 임재가 정확하게 어떠한 현상이었는가에 대한 논란이 많다. 이러한 체험적인 신앙 때문에 심슨을 신비주의자로 몰아세우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체험을 한 사람들이 있다. 심슨에게 임했던 예수님의 임재는 모세에게 임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출 33:5-8)나 엘리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임재 (왕상 19:11-13)와 유사하며 특히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대면했던 빛으로 임하는 부활의 주님의 모습 (행 9:3; 22:6)과 아주 흡사하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의 대면 후에도 주님과 이러한 인격적인

만남을 체험하였다 (18:9-10; 23:11). 사도 바울처럼, 심슨도 특별한 계기가 있을 적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특별한 은사를 가졌던 것 같다. -역자 주]

이로부터 수개월동안 심슨의 일기는 심슨이 얼마나 간절하게 금식기도를 통해 모든 은사를 포함한 성령세례를 받기를 간구했는지 잘 묘사하고 있다. 때로는 한밤중 자신의 집 잔디밭을 거닐면서, 때로는 베란다에 밤늦도록 앉아서, 캐나다로 가는 열차 안에서, 심지어는 자신의 결혼기념일에도 이 문제로 고심했다. 하나님은 심슨의 간구에 여러 모로 응답하셨다. 어떤 경우는 거룩한 폭소 (Holy laughter)를 허락하시기도 하셨고, 어떤 경우는 성령의 뜨거운 불길을 체험하기도 하였고, 어떤 때는 성령께서 무한한 평안과 기쁨으로 자신을 감싸는 것을 느끼기도 하였지만 정작 방언의 은사는 허락하시지 않으셨다.

이러한 간구의 과정을 거쳐서 심슨은 방언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였던 것 같다. 그가 후에 출판했던 빌립보서 강해설교집의 내용이 이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세속적, 사회적 야망과 성공과 명성을 추구함**으로 엄청난 갈등과 고난을 자초하고 있다. 이는 비단 세속적인 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영적 은사를 갈구하는 이면에도 이러한 동기가 도사리고** 있는 경우도 많고 이러한 별난 은사를 추구하는 성도들 때문에 불필요한 갈등이 교회에 만연되는 경향도 있다. 빌립보 3장에서 바울 사도는 이에 관하여 중요한 가르침을 제공하고 있다. 바울의 가장 큰 소망은 모든 것을 잃고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그것이었다 [참조: 빌 3:7-8]. 이보다 더 간명한 말씀이 어디 있는가? 예수님 그분만을 우리가 소원한다면 지금 성령의 은사의 문제든 전도의 문제든 간에 모든 분야에 있어서 갈등이 있을 이유가 없을 것이다. 만일 성령님과 예수님 중에 한 분을 택하라고 묻는다면 물론 예수님을 택하여야 한다. 왜냐 하면 성령의 사역은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심슨 목사는 1907년 9월 14일 일기를 쓰고 나서 1912년 10월 6일까지 일기를 쓰지 않았다. 1912년 10월 6일 일기를 읽어보자. “일기를 그만 쓴 지 5년이 지났다. 그 동안 많은 사건이 일어났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셨다. 술한 세월이 흘렀는데도 성령께서 내게 방언의 은사를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와 다름없이 내게 감응하셨고 많은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다.” 5년의 세월을 인고하며 말씀과 기도를 통해 검증한 끝에 심슨은 이제 확실한 입장을 정리하였다. 방언의 은사는 성령충만한 성도에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이지만, **성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요, 방언이 성령충만의 증거도 아니라고** 결론지은 것이다. 하나님은 특히 심슨으로

하여금 심슨 개인의 삶과 얼라이언스 무브먼트를 요약할 수 있는 “예수만을 위하여”란 원칙을 계속 상기시켜주셨던 것이다.

1910년 4월 심슨은 얼라이언스의 공식잡지 사설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혹이 주장하기를 얼라이언스와 그 지도자들이 이 세대에 방언의 은사가 있는 것을 부인한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간 여러 번에 걸쳐 방언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세대에 성령께서 **모든 은사를 교회에 허락하셨음을 100 퍼센트 인정합니다.** 물론 방언의 은사도 이에 포함됩니다. 저희 얼라이언스의 가장 현명하고 훌륭한 사역자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러한 은사를 체험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방언의 은사가 곧 성령세례의 증거라고 주장하는 가르침에 반대할 뿐 아니라 이러한 극단적이고 비성경적인 교리만을 내세우는 분들과는 동역할 수 없음을 밝힙니다. 우리는 이 일에 있어 성령 안에서 사랑과 자유로 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방언을 받지 못한 분들은 이를 받고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하시는 분들을 주안에서 **용납할** 것이며, 둘째 방언을 받은 분들도 방언을 받지 않았으나 성령이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다른 은사를 받은 분들을 **용납해야** 합니다. 자유와 사랑이란 이 두 가지 성경적 원칙에 근거해서만 우리는 연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결국 실수와 분란과 광신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이로부터 여러 해가 지난 후 누군가가 심슨의 이 입장을 간단하게 “Seek not, forbid not” (장려하지도 말고 금하지도 말라)란 네 단어로 요약했다. 아마도 이렇게 짧게 요약하는 재주를 가졌던 토저의 솜씨였으리라.

방언이 성령세례의 증거임을 인정하기를 거부한 심슨의 결정은 얼라이언스에 엄청난 타격을 입혔다. 하나님의 성회 역사가인 윌리엄 멘지스 박사는 이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얼라이언스 지도부가 오순절 증거를 억누름으로 말미암아 당시 얼라이언스 소속 교회 중 대형교회들과 뛰어난 지도자들이 얼라이언스를 떠나 초기 하나님의 성회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

멘지스 박사의 표현대로 오순절 방언운동이 소수의 얼라이언스 지회에서 핏박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얼라이언스의 공적인 입장은 어디까지나 사랑과 관용이었다. 얼라이언스 지도자들은 방언만이 성령세례의 증거라는 가르침을 믿을 수도 없었고 이를 주장하는 동료들의 주장도 설득력이 없었다. 이제 갈등은 도저히 해소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그 상처 또한 너무도 감당하기 어려웠다. 특히 이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이들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 동고동락해온 심슨의 고통은 누구보다도 심했다. 오랜 세월 심슨의 지기였던 맥켄지 박사는 이렇게

기록했다. “그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토록 자신이 신임하던 유능한 친구들과 사역자들이 자신을 떠나갔을 때, 심슨이 겪었던 고통과 슬픔을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 1 서에서 요한은 자신을 떠난 형제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지요.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요일 1:19). 그러나 심슨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떠났지만 그들은 진실로 얼라이언스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슨이 고난과 고통 속에 몸부림칠 때 이들은 심슨과 함께 하였고 기도와 헌신적인 봉사로 심슨의 사역에 기둥역할을 감당했던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야 어떻게 되었든 하나님께 맡기고 이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